

# KLSI

## ISSUE PAPER

www.klsi.org

###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 청년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목차]

- I. 머리말
- II.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 III.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
- 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
- V.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 <보론1> 청년 고용 지표
- <보론2> 체감실업자(실업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약>

o Eurofound(2012)와 OECD(2016)는 공식 교육과 취업에서 배제된 청년(15-29세)을 청년 니트(N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로 정의한다. 한국의 청년 니트 규모는 2016년 178만 명(전체 청년 인구의 18.9%)으로,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청년 니트 비율이 높다.

o 남성은 청년 니트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함에 따라, 2016년 청년 니트 비율은 남성(18.7%)과 여성(19.0%)이 같다. 이것은 여성 육아·가사 니트가 2005년 11.0%에서 2016년 5.6%로 빠른 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인데, 남성이 육아·가사 책임을 함께 짚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만혼(晩婚)과 저출산(底出產)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o OECD 회원국 청년 니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가 36.1%고, 대졸 고학력자가 16.5%다. 한국은 저학력자가 6.8%, 고학력자가 42.5%로, 청년 니트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것은 교육훈련을 확대·강화한다고 해서 청년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o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노동력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OECD(2016b)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총 노동소득으로 정의하고,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는 총 노동비용으로 측정한다. 2016년 한국의 청년 니트 비용은 최소 23조8천억 원(GDP의 1.5%), 최대 41조5천억 원(GDP의 2.5%)으로 추정된다.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보다 니트 비용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두 나라뿐이다.

<표> 한국의 니트 비용 추정치(상한과 하한, 2016년)

조사	국내총생산 (GDP,조원)	최소(하한)		최대(상한)		청년 니트 비율 (%)
		니트비용 (조원)	GDP 대비 (%)	니트비용 (조원)	GDP 대비 (%)	
경제활동인구조사	1,637.4	23.8	1.5	37.1	2.3	18.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637.4	25.6	1.6	41.5	2.5	18.9

#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 - 청년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요즘 청년은 역사상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취업해도 저임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일자리 없는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청년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청년 니트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고, 2015년 현재 OECD 회원국 청년 니트는 4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2,800만 명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다(OECD 2016b).

니트는 청년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남긴다. 청년의 재능과 잠재력이 사장되고, 가구소득이 줄고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낙인효과와 임금페널티 등으로 미래의 취업과 소득에 불이익이 생기고, 심리적 고통과 불만, 소외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손상된다.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와 격리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노동시장 통합은 OECD 각국 정부의 정책에서 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Eurofound 2012, OECD 2016b).

그동안 청년 니트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 청년 니트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OECD 회원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청년 니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보론에서 다룬다.

## II .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연구자마다 그때그때 연구 목적에 따라 청년 니트를 달리 정의한다. 여기서는 국제비교 편의상 Eurofound(2012)와 OECD(2016b)에 따라, 공식 교육과 취업에서 배제된 청년(15-29세)을 청년 니트(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로 정의한다.

<표1>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에서 청년 니트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청년 인구 943만 명 중 재학생 419만 명(44.5%), 취업자 346만 명(36.7%)을 제외하면 청년 니트가 178만 명(18.9%)이다.

청년 니트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눌 수 있다. 실업자는 39만 명(4.1%)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39만 명(14.8%)으로, 실업 니트보다 비경제활동 니트가 훨씬 많다. 하지만 실업자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를 합친 구직 니트는 91만 명(9.7%)으로, 비구직 니트 86만 명(9.2%)보다 조금 많다.

<표1> 청년 니트 규모(2016년)

구분		수(천명)	비율(%)
청년인구(15-29세)	(A)	9,428	100.0
재학생	(B)	4,192	44.5
취업자	(C)	3,457	36.7
NEET	(D=A-B-C)	1,778	18.9
실업NEET	(E)	386	4.1
비경제활동NEET	(F)	1,393	14.8
구직NEET	(G)	914	9.7
비구직NEET	(H)	864	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16년)

주: 청년 니트 = 청년인구 - 재학생 - (재학생이 아닌) 취업자

= 실업 니트 + 비경제활동인구 니트 = 구직 니트 + 비구직 니트

2016년 니트 비율은 남성(18.7%)과 여성(19.0%)이 같고, 20세 미만(8.8%), 20대 초반(22.6%), 20대 후반(24.5%)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다. 학력별 니트 비율은 중졸이하(63.6%), 고졸(38.1%), 대졸이상(26.6%), 전문대졸(22.0%) 순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중졸이하하는 3명 중 2명꼴로 니트다(<표2> 참조).

<표2> 성·연령·학력별 청년 니트 비율(2016년, 단위:%)

		수(천명)			비율(%)			구성비(%)		
		NEET	실업 NEET	비경제활동 동NEET	NEET	실업 NEET	비경제활동 동NEET	NEET	실업 NEET	비경제활동 동NEET
전체		1,778	386	1,392	18.9	4.1	14.8	100.0	100.0	100.0
성별	남자	880	212	668	18.7	4.5	14.2	49.5	54.9	48.0
	여자	898	174	724	19.0	3.7	15.4	50.5	45.1	52.0
연령	20세미만	263	18	245	8.8	0.6	8.2	14.8	4.7	17.6
	20-24세	696	145	551	22.6	4.7	17.9	39.1	37.6	39.6
	25-29세	818	222	596	24.5	6.6	17.8	46.0	57.5	42.8
학력	중졸이하	119	8	111	63.6	4.3	59.4	6.7	2.1	8.0
	고졸	607	102	505	38.1	6.4	31.7	34.1	26.4	36.3
	전문대졸	254	70	184	22.0	6.1	16.0	14.3	18.1	13.2
	대졸이상	507	165	342	26.6	8.7	18.0	28.5	42.7	24.6
	재학휴학중	290	40	250	6.3	0.9	5.4	16.3	10.4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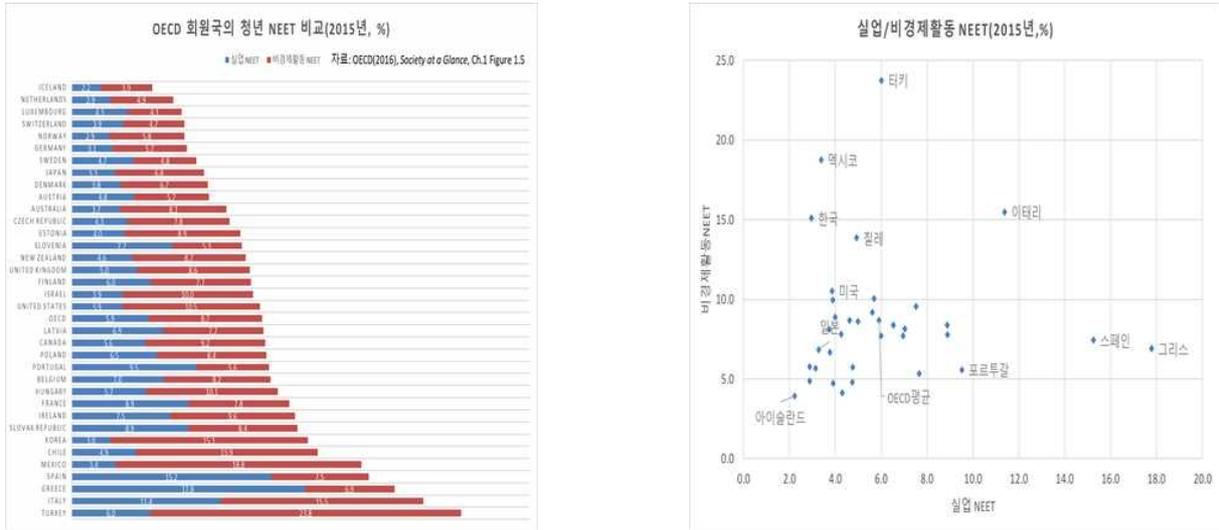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16년)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sup>1)</sup> 2015년 청년 니트 비율이 한국(18.6%)보다 높은 나라는 터키(29.8%), 이태리(26.9%), 그리스(24.7%), 스페인(22.7%), 멕시코(22.1%), 칠레(18.8%) 여섯 나라로, 이들은 모두 아시아와 남미, 남부유럽 국가들이다. 청년 니트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6.2%), 네덜란드(7.8%), 룩셈부르크(8.4%), 스위스(8.6%), 노르웨이(8.6%), 독일(8.8%), 스웨덴(9.5%) 순으로, 이들은 모두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들이다 ([그림1]왼쪽 참조).

청년 니트를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국은 터키, 멕시코, 칠레와 함께 실업 니트 비율은 낮고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높은 나라다. 이에 비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는 실업 니트 비율은 높고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낮다.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는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모두 낮다([그림1]오른쪽 참조).

1) 흔히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낮은 원인을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재학생을 제외해도 다른 나라보다 청년 니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그림1] OECD 회원국의 청년 니트 국제 비교(2015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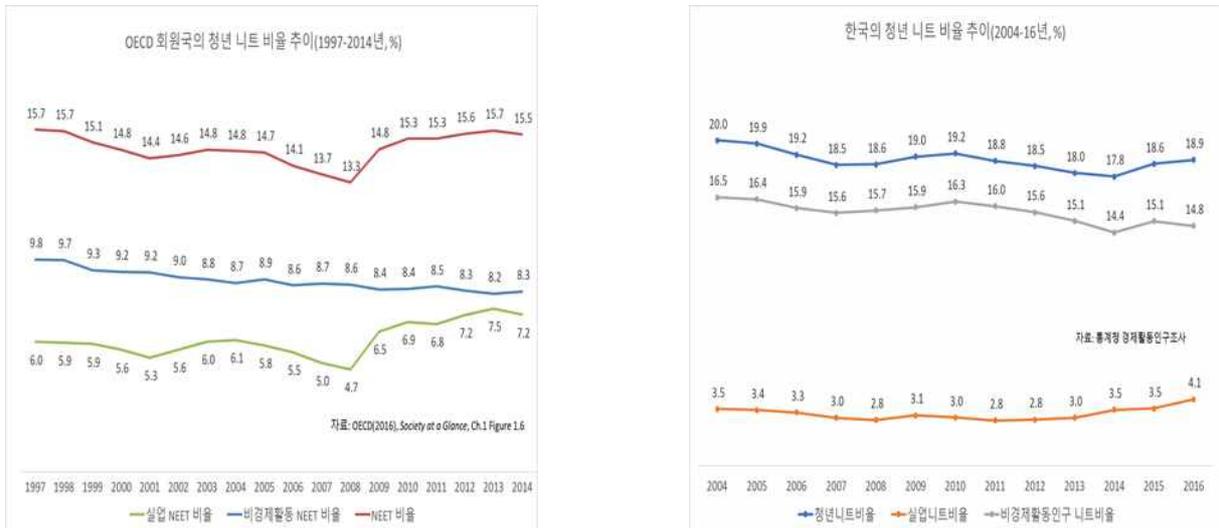


### III.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

OECD 회원국의 청년 니트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14.8%에서 감소하다가 2008년 13.3%를 저점으로 2014년에는 15.5%로 증가했다.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 니트 비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니트 비율은 2008년 4.7%에서 2014년 7.2%로 2.5%p 높아졌다([그림2]왼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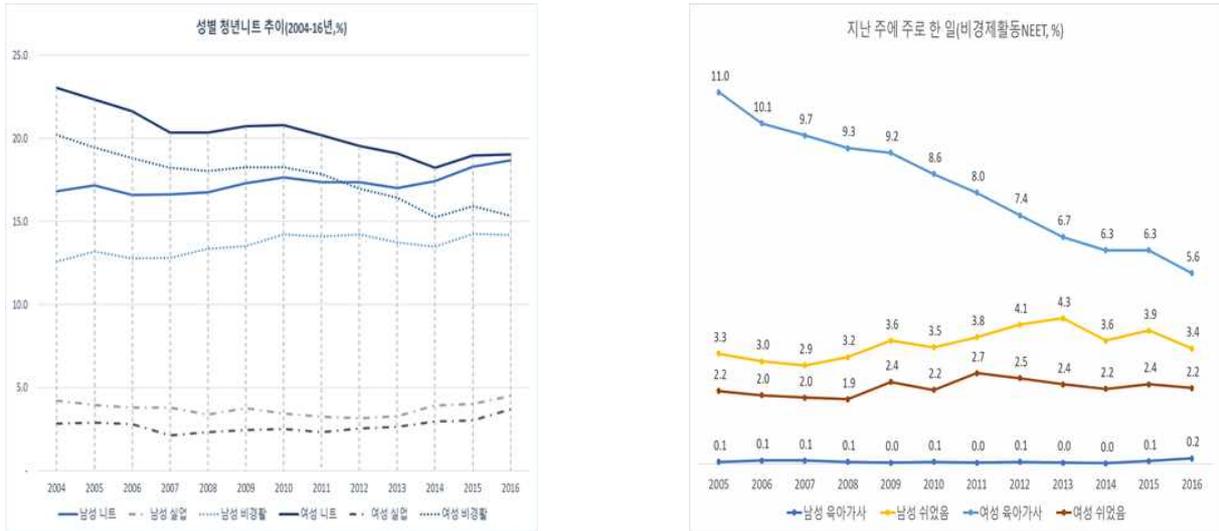
한국은 청년 니트 비율이 2010년 19.2%에서 감소하다가 2014년 17.8%를 저점으로 2016년 18.9%로 증가했다.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OECD 평균과 마찬가지로 2010년 16.3%에서 2016년 1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업 니트 비율은 2011~12년 2.8%를 저점으로 2016년에는 4.1%로 증가했다([그림2]오른쪽 참조).

[그림2]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 추이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남녀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은 2004년 12.6%에서 2016년 14.2%로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0.2%에서 15.4%로 감소했다. 청년 니트 비율도 남성은 16.8%에서 18.7%로 증가했고, 여성은 23.0%에서 19.0%로 감소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청년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 모두 남녀 차이가 사라졌다([그림3]왼쪽 참조).

[그림3] 한국의 성별 니트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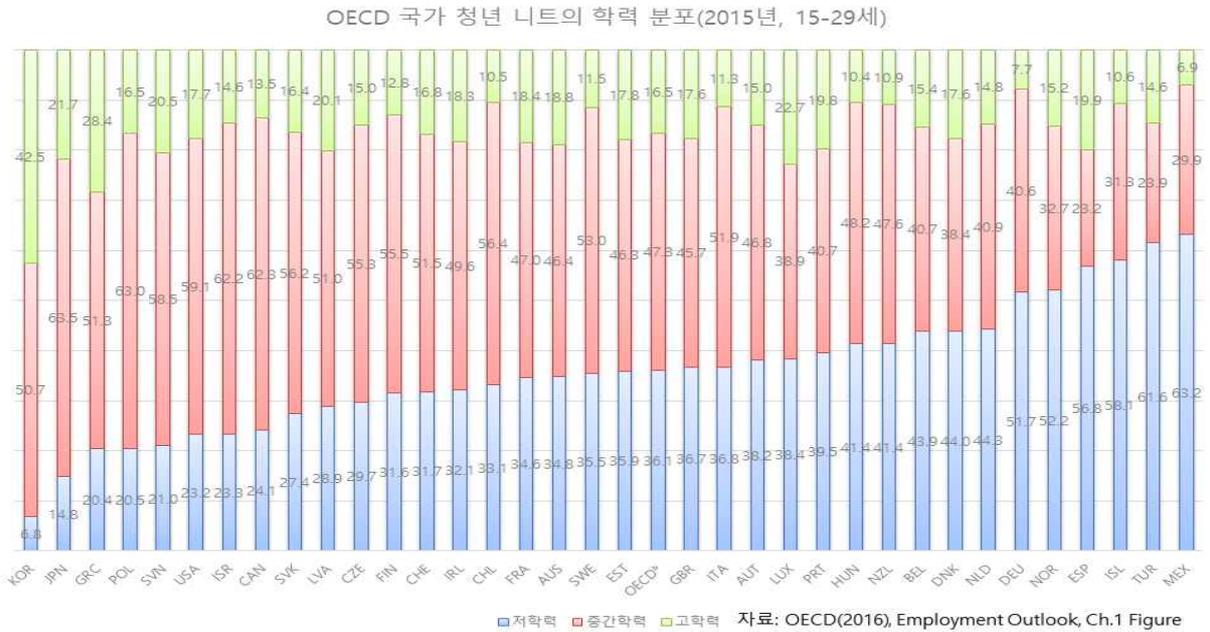


한데 여성 니트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육아·가사 니트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가사 니트는 2005년 11.0%에서 2016년 5.6%로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남성은 0.1%에서 0.2%로 육아·가사 니트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여성 육아·가사 니트 비율 감소는 남성이 육아·가사 책임을 함께 하거나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만혼(晩婚)과 저출산(底出産)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니트 비율 감소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그림3]오른쪽 참조),

#### 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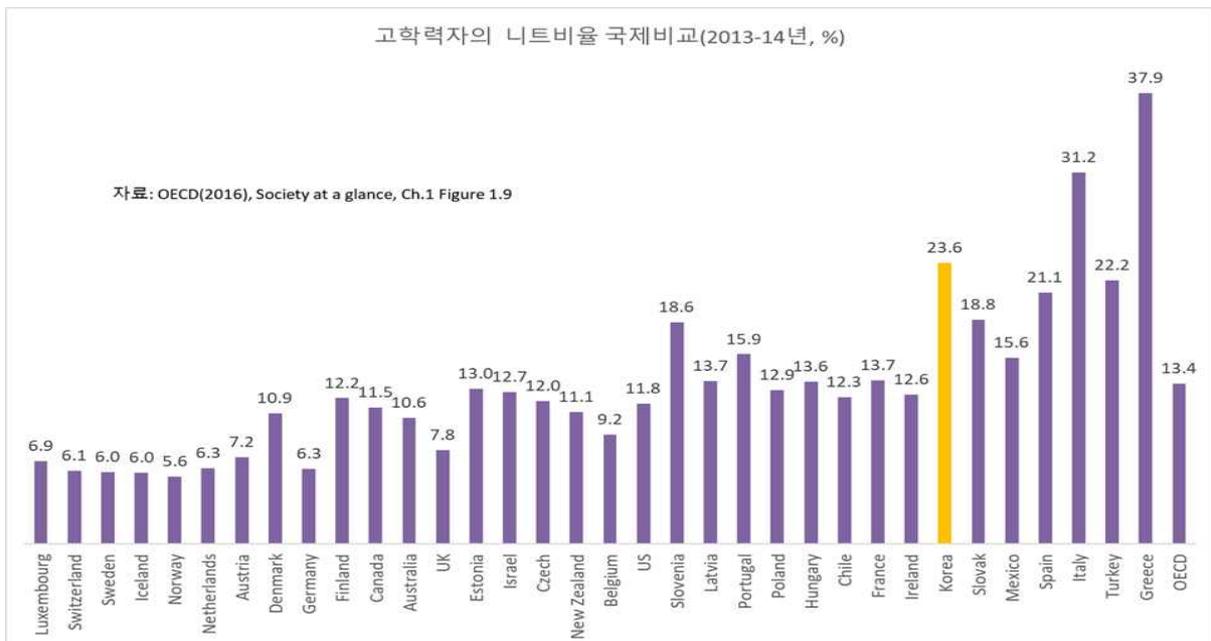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청년 니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가 36.1%고, 대졸 고학력자가 16.5%다. 청년 니트 3명 중 한 명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6명 중 1명만 대졸자다. 특히 멕시코(63.2%), 터키(61.6%), 이스라엘(58.1%), 스페인(56.8%), 노르웨이(52.2%), 독일(51.7%) 6개 국은 청년 니트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다. 이에 비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청년 니트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다. 대학 교육을 마친 고학력자는 42.5%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는 6.8%로 가장 적다([그림4] 참조).

[그림4] OECD 국가 청년 니트의 학력 분포(2015년, 단위: %)



이처럼 저학력자 비중이 낮고 대졸자 비중이 높다 보니,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 니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OECD 회원국에서 대졸자가 니트가 될 확률은 평균 13.4%인데, 한국은 23.6%로 두 배 가량 높다. 한국보다 대졸자 니트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37.9%)와 이태리(31.2%) 두 나라뿐이다([그림5] 참조).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교육훈련을 확대·강화한다고 해서 니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그림5] 대졸자 니트 비율 국제비교 (2013-14년, 단위: %)



## V.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2016년 한국의 청년 니트는 178만 명(청년 인구의 18.9%)으로, OECD 회원국 중 청년 니트 비율이 일곱 번째로 높다.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노동력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OECD는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총 노동소득으로 정의하고,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포함하는 총 노동비용으로 측정하고 있다.

OECD(2016b)는 2014년 OECD 회원국<sup>2)</sup>의 청년 니트가 유발한 총노동비용을 5,600억\$(GDP의 1.4%)로 추정하고, 최소 3,600억\$(GDP의 0.9%)에서 최대 6,050억\$(GDP의 1.5%)로 추정하고 있다.

### [참고1]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방식

① 하한 추정치(lower bound estimate): 니트는 취업을 해도 저임금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성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 임금 중위값의 2/3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② 상한 추정치(upper bound estimate): 성과 연령이 동일한 취업 청년과 동일한 노동시간 일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하한 추정치와 상한 추정치는 성과 연령 이외에 학력 등 기타 특성 차이는 무시한다.

③ 점 추정치(point estimate): 성, 연령, 학력, 가족관계 등 관측 가능한 특성이 동일한 청년의 임금을 니트의 기회비용으로 사용한다. 니트는 취업해도 이미 취업해 있는 청년들보다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헤크만(Heckman)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해서 선택 편의를 잡아준다.

<표3>은 OECD 방식으로 한국의 니트 비용 최소(하한)치와 최대(상한)치를 추정한 결과다. 먼저 최소(하한)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각 년도 8월)에서 성별, 연령별 중위임금의 2/3를 구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임금의 9.36%)<sup>3)</sup>을 더한 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한 성별, 연령별 니트 수를 곱하면,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임금총액의 최소치가 나온다. 2016년 니트 비용은 23조8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다. 청년 니트 비용 최소치는 2005년 GDP의 2.0%에서 2011년 1.5%로 하락한 뒤 2016년에도 1.5%로 지난 5년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한국,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4개국은 자료의 제약으로 포함하지 못 함.

3) 국민연금 4.5%, 고용보험료 0.9%, 건강보험료 3.26%, 산재보험 0.7%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여서 실제보다 임금이 적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중위임금의 2/3를 구한 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니트 비용을 계산했다. 2016년 니트 비용은 25조6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다.

<표3> 한국의 니트 비용 추정치 (상한과 하한)

조사	연도	국내총생산 (GDP, 조원)	하한(lower bound)		상한(upper bound)		청년니트 비율(%)
			니트비용 (조원)	GDP 대비 (%)	니트비용 (조원)	GDP 대비 (%)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5	919.8	18.8	2.0	29.6	3.2	19.9
	2006	966.1	18.9	2.0	29.6	3.1	19.2
	2007	1,043.3	18.9	1.8	29.9	2.9	18.5
	2008	1,104.5	20.0	1.8	31.5	2.9	18.6
	2009	1,151.7	20.4	1.8	31.6	2.7	19.0
	2010	1,265.3	20.8	1.6	32.5	2.6	19.2
	2011	1,332.7	20.4	1.5	32.0	2.4	18.8
	2012	1,377.5	20.7	1.5	32.3	2.3	18.5
	2013	1,429.4	21.7	1.5	33.1	2.3	18.0
	2014	1,486.1	21.6	1.5	33.3	2.2	17.8
	2015	1,564.1	23.7	1.5	35.7	2.3	18.6
2016	1,637.4	23.8	1.5	37.1	2.3	18.9	
고용형태	2016	1,637.4	25.6	1.6	41.5	2.5	1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각년도 8월);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년)

다음으로 최대(상한)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각 년도 8월)에서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임금의 9.36%)을 더한 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구한 성별, 연령별 니트 수를 곱하면, 니트가 취업하면 받게 될 임금총액의 최대치가 나온다. 2016년 니트 비용은 37조1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다. 청년 니트 비용 최대치는 2005년 GDP의 3.2%에서 2012년 2.3%로 하락한 뒤 2016년에도 2.3%로 지난 5년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을 구한 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니트 비용을 계산했다. 2016년 니트 비용은 41조5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다.

참고로 2016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성별 연령계층별 니트 수를 구하고,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성별 연령계층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을 구한다. 둘째, 니트 비용 최소치는 성별 연령계층별로 [니트수×(중위임금 2/3)×1.0936×12개월]을 계산해 합산했고, 니트 비용 최대치는 성별 연령계층별로 [니트수×평균임금×1.0936×12개월]을 계산한 뒤 합산했다.

<표4> 니트 경제적 비용 추정 과정(2016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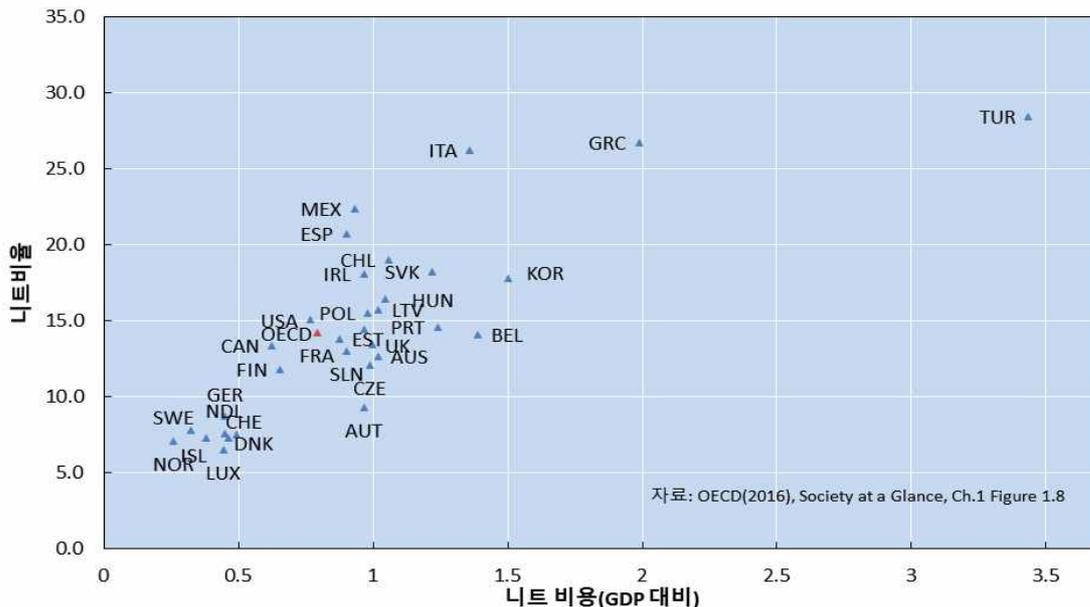
		남자			여자			청년 니트 전체
		20세 미만	20-24 세	25-29 세	20세 미만	20-24 세	25-29 세	
니트수(천명)		148	348	384	115	349	434	1,778
최소치	중위임금(만원)	60	140	200	60	150	180	
	중위임금 2/3(만원) + 사용자 사회보험료 분담금(9.36%)	44	102	146	44	109	131	
	연간니트비용(억원)	7,769	42,624	67,191	6,037	45,800	68,346	237,766
최대치	평균임금(만원)	86	138	208	77	141	194	
	평균임금(만원) + 사용자 사회보험료 분담금(9.36%)	94	151	228	84	154	212	
	연간니트비용(천만원)	16,615	63,140	104,920	11,650	64,625	110,378	371,3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16년8월)

[그림6]은 OECD(2016)가 작성한 그래프에 한국의 니트 비용 최소치(1.5%)를 삽입한 결과다. 첫째, 한국의 니트 비용(1.5%)은 터키(3.4%), 그리스(2.0%)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둘째, 니트 비용이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0.3%), 스웨덴(0.3%), 덴마크(0.4%), 룩셈부르크(0.4%), 독일(0.4%), 네덜란드(0.4%), 아이슬란드(0.5%), 스위스(0.5%) 순이다. 북유럽 국가는 니트 비율과 니트 비용 모두 가장 낮다.

[그림6] OECD 국가의 니트 비율과 니트 비용 최소치(2014년, 단위:%)

니트비율과 니트비용 최소치 (201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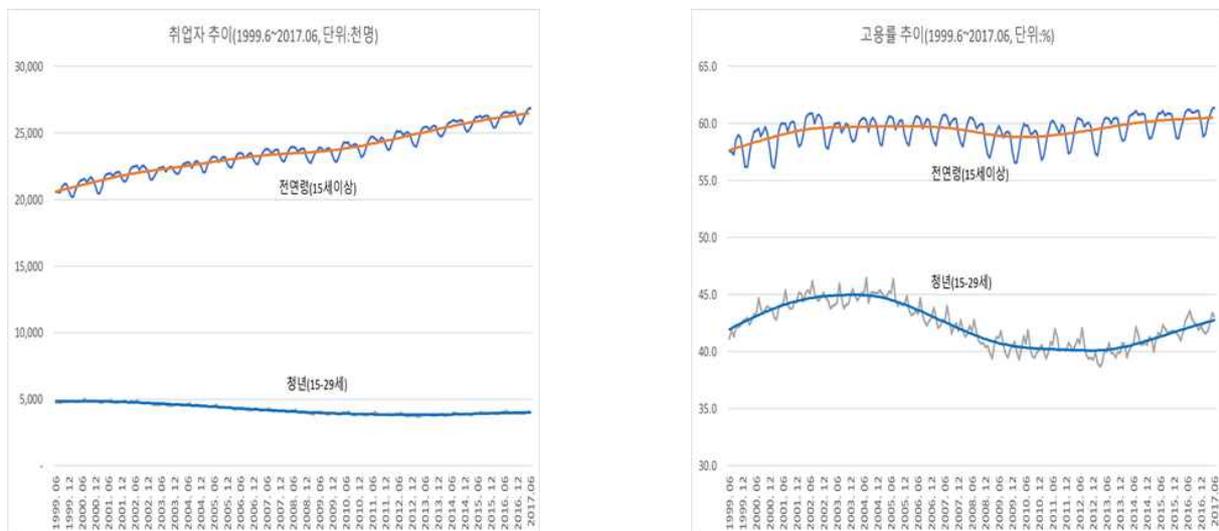
## <보론1> 청년 고용 지표

### 1. 취업자(고용률)

전체(15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2,116만 명에서 2014년 2,56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률은 2002년 60.0%에서 2009년 58.6%로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년(60.2%)에는 60%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60.4%로 증가했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2000년 488만 명에서 2013년 379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399만 명으로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2002년 45.1%에서 2013년 39.7%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42.3%로 늘어났다([그림7]과 <표5> 참조).

[그림7]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1999.6~2017.6,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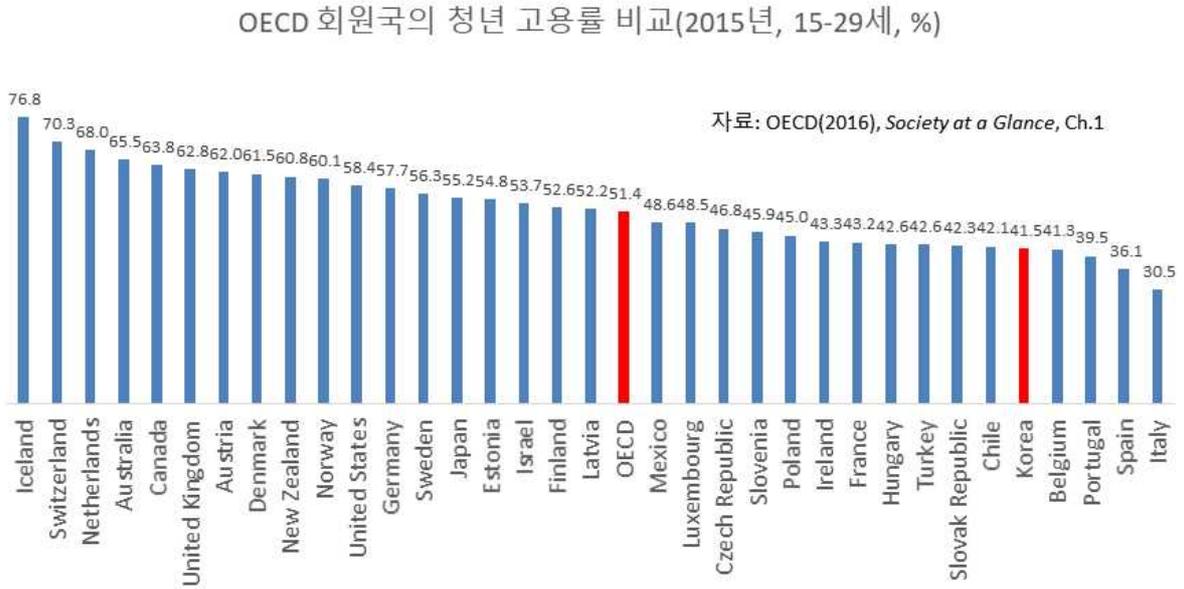
<표5>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2000~2016년, 2017년 1~7월)

		취업자(천명)					고용률(%)				
		전연령	청년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전연령	청년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연	2000	21,156	4,879	389	1,660	2,830	58.5	43.4	10.3	52.0	66.1
	2001	21,572	4,815	358	1,689	2,768	59.0	44.0	10.1	52.0	66.7
	2002	22,169	4,799	313	1,784	2,702	60.0	45.1	9.4	53.6	67.7
	2003	22,139	4,606	272	1,735	2,600	59.3	44.4	8.6	51.8	67.5
	2004	22,557	4,578	258	1,722	2,598	59.8	45.1	8.4	52.5	68.5
	2005	22,856	4,450	243	1,583	2,624	59.7	44.9	8.0	51.6	68.9
	2006	23,151	4,270	209	1,418	2,643	59.7	43.4	6.7	49.2	68.5
	2007	23,433	4,202	211	1,313	2,679	59.8	42.6	6.6	48.0	68.4
	2008	23,577	4,084	190	1,220	2,674	59.5	41.6	5.9	45.5	68.5
	2009	23,506	3,957	178	1,181	2,598	58.6	40.5	5.4	44.6	67.5
	2010	23,829	3,914	204	1,171	2,539	58.7	40.3	6.1	44.3	68.2
	2011	24,244	3,879	227	1,160	2,492	59.1	40.5	6.8	43.5	69.7
	2012	24,681	3,843	231	1,249	2,363	59.4	40.4	7.0	44.5	69.2
	2013	25,066	3,793	224	1,278	2,291	59.5	39.7	6.9	43.2	68.8
	2014	25,599	3,870	244	1,359	2,266	60.2	40.7	7.7	44.8	69.1
	2015	25,936	3,938	245	1,422	2,272	60.3	41.5	7.9	46.1	69.0
2016	26,235	3,985	240	1,417	2,329	60.4	42.3	8.0	46.0	69.6	
월	2017. 01	25,689	3,929	267	1,369	2,294	58.9	41.8	9.0	45.1	67.5
	2017. 02	25,788	3,911	272	1,325	2,315	59.1	41.6	9.2	43.7	68.0
	2017. 03	26,267	3,924	237	1,355	2,331	60.2	41.8	8.1	44.7	68.4
	2017. 04	26,577	3,989	264	1,375	2,350	60.8	42.5	9.0	45.4	68.8
	2017. 05	26,824	4,070	274	1,408	2,388	61.3	43.4	9.4	46.5	69.8
	2017. 06	26,860	4,032	256	1,397	2,379	61.4	43.1	8.8	46.2	69.4
	2017. 07	26,916	4,099	280	1,442	2,377	61.5	43.8	9.7	47.8	69.2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 OECD 회원국 중 청년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76.8%), 스위스(70.3%), 네덜란드(68.0%), 호주(65.5%), 캐나다(63.8%), 영국(62.8%), 오스트리아(62.0%), 덴마크(61.5%), 뉴질랜드(60.8%), 노르웨이(60.1%) 순이다. OECD 평균은 51.4%고 멕시코도 48.6%인데, 한국은 41.5%로 매우 낮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41.3%), 포르투갈(39.5%), 스페인(36.1%), 이태리(30.5%) 네 나라뿐이다([그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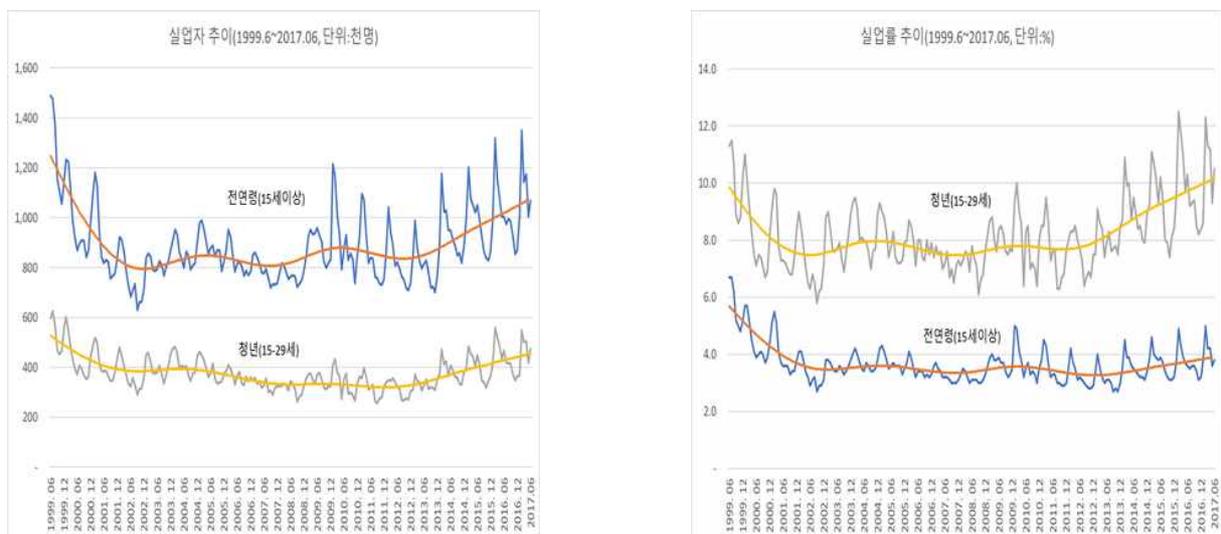
[그림8] OECD 회원국의 청년 고용률 비교(2015년, 15-29세, 단위:%)



## 2. 실업자(실업률)

전체(15세 이상) 실업자(실업률)는 2000년 98만 명(4.4%)에서 2002년 75만 명(3.3%)으로 감소한 뒤, 77~92만 명(3.2~3.7%)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최근에는 2013년 81만 명(3.1%)을 저점으로 2016년 101만 명(3.7%)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15~29세) 실업자(실업률)는 2000년 43만 명(8.1%)에서 감소하다가 2012년 31만 명(7.5%)을 저점으로 2016년 44만 명(9.8%)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9]와 <표6> 참조).

[그림9]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1999.6~2017.6, 단위: 천명,%)



<표6>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2000~2016년, 2017년 1~7월)

		실업자(천명)					실업률(%)				
		전연령	청년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전연령	청년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연	2000	979	430	66	183	181	4.4	8.1	14.5	9.9	6.0
	2001	899	413	60	174	179	4.0	7.9	14.4	9.3	6.1
	2002	752	361	43	153	165	3.3	7.0	12.1	7.9	5.8
	2003	818	401	41	184	176	3.6	8.0	13.0	9.6	6.3
	2004	860	412	42	189	181	3.7	8.3	14.1	9.9	6.5
	2005	887	387	35	173	179	3.7	8.0	12.5	9.9	6.4
	2006	827	364	24	156	184	3.5	7.9	10.4	9.9	6.5
	2007	783	328	22	126	180	3.2	7.2	9.3	8.7	6.3
	2008	769	315	22	123	170	3.2	7.2	10.2	9.2	6.0
	2009	889	347	25	124	199	3.6	8.1	12.2	9.5	7.1
	2010	920	340	28	122	190	3.7	8.0	11.9	9.5	7.0
	2011	855	320	27	121	172	3.4	7.6	10.8	9.4	6.5
	2012	820	313	22	124	167	3.2	7.5	8.8	9.0	6.6
	2013	807	331	26	129	176	3.1	8.0	10.3	9.2	7.1
	2014	937	385	25	154	206	3.5	9.0	9.2	10.2	8.3
	2015	976	397	29	167	201	3.6	9.2	10.6	10.5	8.1
2016	1,012	435	27	172	236	3.7	9.8	10.0	10.8	9.2	
월	2017. 01	1,009	368	30	133	206	3.8	8.6	10.0	8.8	8.2
	2017. 02	1,350	548	30	218	300	5.0	12.3	10.0	14.1	11.5
	2017. 03	1,143	501	30	197	273	4.2	11.3	11.3	12.7	10.5
	2017. 04	1,174	505	30	200	275	4.2	11.2	10.1	12.7	10.5
	2017. 05	1,003	419	17	177	225	3.6	9.3	5.9	11.1	8.6
	2017. 06	1,069	475	26	181	268	3.8	10.5	9.2	11.5	10.1
	2017. 07	963	420	32	148	240	3.5	9.3	10.3	9.3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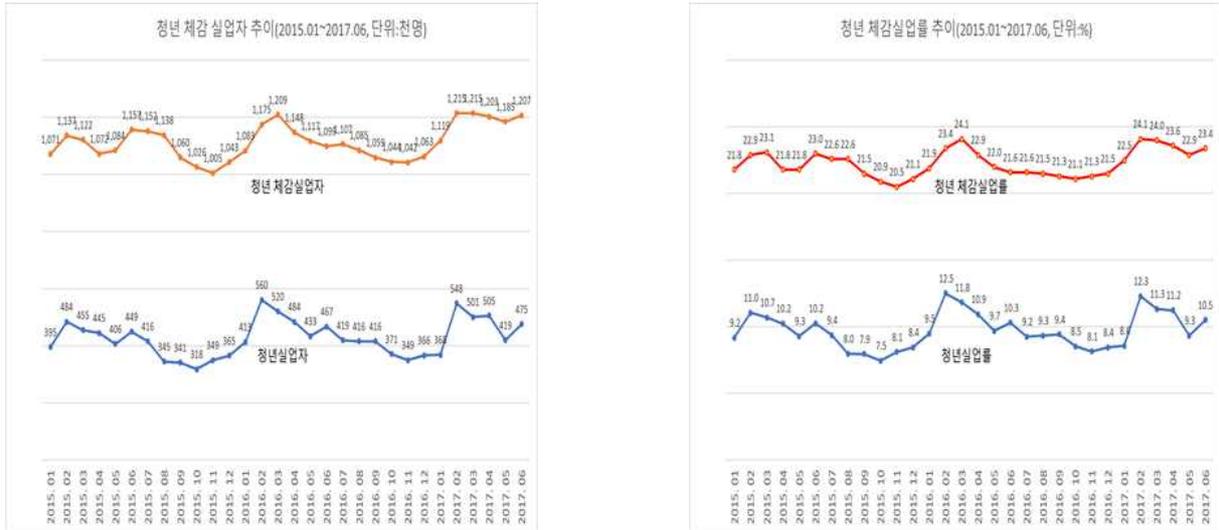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3. 체감 실업자(실업률)

2017년 상반기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실업률)는 113만 명(4.1%)이다. 여기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57만 명)와 잠재경제활동인구(164만 명)를 합친 체감 실업자(실업률)는 334만 명(11.5%)이다.

같은 시기 청년 실업자는 47만 명(10.5%)이다. 여기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만 명)와 잠재경제활동인구(64만 명)를 합친 청년 체감 실업자(실업률)는 119만 명(23.4%)이다. 공식 실업자의 41.7%, 체감 실업자의 35.7%가 청년이다. 2015-16년에는 체감 실업자(실업률)가 2월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든데 비해, 2017년 상반기에는 120만 명(23-24%) 수준을 상반기 내내 유지하고 있다([그림10]과 <표7> 참조).

[그림10] 청년 체감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2015.01-2017.06, 단위: 천명, %)



<표7> 체감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2015~2016년, 2017년 1~7월)

연령	연월	수(천명)				비율(%)	
		실업자	고용보조지표3		체감실업자	실업률	체감실업률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 인구			
전연령	2015	976	500	1,747	3,223	3.6	11.2
	2016	1,012	509	1,575	3,096	3.7	10.7
	2017. 01	1,009	515	1,790	3,314	3.8	11.6
	2017. 02	1,350	578	1,621	3,549	5.0	12.3
	2017. 03	1,143	562	1,630	3,335	4.2	11.5
	2017. 04	1,174	577	1,544	3,295	4.2	11.2
	2017. 05	1,003	579	1,669	3,251	3.6	11.0
	2017. 06	1,069	601	1,606	3,276	3.8	11.1
	2017. 07	963	628	1,648	3,239	3.5	11.0
	2017상	1,125	569	1,643	3,337	4.1	11.5
청년	2015	397	69	623	1,089	9.2	22.0
	2016	435	78	590	1,103	9.8	22.0
	2017. 01	368	83	668	1,119	8.6	22.5
	2017. 02	548	85	582	1,215	12.3	24.1
	2017. 03	501	80	634	1,215	11.3	24.0
	2017. 04	505	82	616	1,203	11.2	23.5
	2017. 05	419	86	680	1,185	9.3	22.9
	2017. 06	475	90	642	1,207	10.5	23.4
	2017. 07	420	92	661	1,173	9.3	22.6
	2017상	469	84	637	1,191	10.5	23.4

자료: 통계청 KOSIS

## [보론2] 체감실업자(실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공식 실업자는 ①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②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으나, ③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난 1주간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취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직활동을 포기했거나, 즉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모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실업자(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불신이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통계청은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3’을 추가로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업자+고용보조지표3’을 체감 실업자로 정의한다.

※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 (1)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지난 주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었던 취업자 중에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했던 자
- (2)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없었던 자
- (3)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주에 일을 원했고,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한데 고용보조지표3으로도 체감 실업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예컨대 이준엽(2016)은 ‘고용보조지표3 + 비자발적 비정규직 + 그냥 쉬었음 = 고용보조지표5(체감실업률)’을 제안한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대부분이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의 근거에서 체감 실업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6년 8월 현재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51.9%인 454만 명이다. 이 조사에서 설문 문항은 “지난 주 일자리 형태로 일한 것은 자발적/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인가?”라 되어 있어, 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응답한 사람도 고용형태 전환을 원한 것이지, 추가취업을 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취업 희망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추가취업희망자는 33만 명(18.8%)이고, 청년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추가취업희망자는 4만 명(14.5%)밖에 안 된다(<표8> 참조).

<표8> 추가 취업 희망 조사결과(2016년 8월)

			전연령	청년
수(천명)	36시간미만근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 (1)	224	12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 (2)	40	7
		더 많이 일 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3)	67	25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4)	1,426	260
		소계 (5)	1,757	304
	36시간이상근무	(6)	2,780	469
	전체	(7=5+6)	4,537	773
	추가취업희망자	(8=1+2+3)	331	44
비율(%)	비율1(%)	(8/7)	7.3	5.7
	비율2(%)	(8/5)	18.8	14.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둘째, ‘쉬었음’에 응답한 청년 25만 명 중 8만 명은 ‘고용보조지표3’ 즉 체감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17만 명을 모두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개념을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청년 니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urofound(2012), NEETs -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OECD(2016a), “Recent labour market developments and the short-term outlook”, Employment Outlook 2016, Ch.1, pp.19-60(51)

OECD(2016b), “The NEET challenge: What can be done for jobless and disengaged youth?”, Society at a Glance 2016, Ch.1, pp.13-75(59).

김유선(2015), “청년고용 실태와 대책”, KLSI 이슈페이퍼 2015-10.

이병희(2017),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고운진호교수추모집발간위원회 엮음, 『노동 현실과 희망 찾기』, 한울

이준엽(2016),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16-20(통권 658호)

<부표1> 성별 연도별 청년 니트 수와 비율

성	연도	수(천명)						비율(%)					
		전체	재학	취업	니트	실업	비경활	전체	재학	취업	니트	실업	비경활
남녀	2004	10,141	3,997	4,111	2,033	355	1,678	100.0	39.4	40.5	20.0	3.5	16.5
	2005	9,920	3,965	3,985	1,970	340	1,630	100.0	40.0	40.2	19.9	3.4	16.4
	2006	9,843	4,141	3,815	1,887	324	1,563	100.0	42.1	38.8	19.2	3.3	15.9
	2007	9,855	4,300	3,728	1,827	291	1,536	100.0	43.6	37.8	18.5	3.0	15.6
	2008	9,822	4,399	3,599	1,824	278	1,546	100.0	44.8	36.6	18.6	2.8	15.7
	2009	9,781	4,438	3,480	1,863	304	1,559	100.0	45.4	35.6	19.0	3.1	15.9
	2010	9,705	4,411	3,426	1,868	288	1,580	100.0	45.5	35.3	19.2	3.0	16.3
	2011	9,589	4,405	3,382	1,802	268	1,534	100.0	45.9	35.3	18.8	2.8	16.0
	2012	9,517	4,424	3,335	1,758	271	1,487	100.0	46.5	35.0	18.5	2.8	15.6
	2013	9,548	4,553	3,272	1,723	282	1,441	100.0	47.7	34.3	18.0	3.0	15.1
	2014	9,502	4,467	3,341	1,694	328	1,366	100.0	47.0	35.2	17.8	3.5	14.4
	2015	9,485	4,340	3,380	1,765	335	1,430	100.0	45.8	35.6	18.6	3.5	15.1
	2016	9,428	4,192	3,457	1,779	386	1,393	100.0	44.5	36.7	18.9	4.1	14.8
남자	2004	4,882	2,063	1,998	821	206	615	100.0	42.3	40.9	16.8	4.2	12.6
	2005	4,781	2,059	1,901	821	190	631	100.0	43.1	39.8	17.2	4.0	13.2
	2006	4,771	2,157	1,823	791	181	610	100.0	45.2	38.2	16.6	3.8	12.8
	2007	4,804	2,211	1,794	799	183	616	100.0	46.0	37.3	16.6	3.8	12.8
	2008	4,803	2,280	1,719	804	162	642	100.0	47.5	35.8	16.7	3.4	13.4
	2009	4,798	2,307	1,661	830	181	649	100.0	48.1	34.6	17.3	3.8	13.5
	2010	4,774	2,308	1,623	843	164	679	100.0	48.3	34.0	17.7	3.4	14.2
	2011	4,718	2,283	1,616	819	154	665	100.0	48.4	34.3	17.4	3.3	14.1
	2012	4,706	2,291	1,598	817	148	669	100.0	48.7	34.0	17.4	3.1	14.2
	2013	4,755	2,377	1,569	809	156	653	100.0	50.0	33.0	17.0	3.3	13.7
	2014	4,742	2,319	1,597	826	186	640	100.0	48.9	33.7	17.4	3.9	13.5
	2015	4,738	2,263	1,609	866	191	675	100.0	47.8	34.0	18.3	4.0	14.2
	2016	4,713	2,170	1,662	881	212	669	100.0	46.0	35.3	18.7	4.5	14.2
여자	2004	5,259	1,934	2,113	1,212	149	1,063	100.0	36.8	40.2	23.0	2.8	20.2
	2005	5,137	1,905	2,084	1,148	149	999	100.0	37.1	40.6	22.3	2.9	19.4
	2006	5,071	1,983	1,992	1,096	143	953	100.0	39.1	39.3	21.6	2.8	18.8
	2007	5,050	2,089	1,933	1,028	108	920	100.0	41.4	38.3	20.4	2.1	18.2
	2008	5,020	2,119	1,880	1,021	116	905	100.0	42.2	37.5	20.3	2.3	18.0
	2009	4,981	2,131	1,818	1,032	122	910	100.0	42.8	36.5	20.7	2.4	18.3
	2010	4,931	2,103	1,803	1,025	124	901	100.0	42.6	36.6	20.8	2.5	18.3
	2011	4,870	2,122	1,765	983	114	869	100.0	43.6	36.2	20.2	2.3	17.8
	2012	4,810	2,133	1,737	940	123	817	100.0	44.3	36.1	19.5	2.6	17.0
	2013	4,794	2,176	1,703	915	127	788	100.0	45.4	35.5	19.1	2.6	16.4
	2014	4,761	2,148	1,745	868	142	726	100.0	45.1	36.7	18.2	3.0	15.2
	2015	4,748	2,077	1,771	900	144	756	100.0	43.7	37.3	19.0	3.0	15.9
	2016	4,715	2,022	1,795	898	174	724	100.0	42.9	38.1	19.0	3.7	1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2> 성별 연도별 유형별 비경제활동 니트 수(단위: 천명)

성	연도	비경제활동니트	육아가사	구직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남녀	2005	1,630	568	347	273	37	63	267	75
	2006	1,561	516	410	243	33	53	248	58
	2007	1,535	496	415	256	32	48	239	49
	2008	1,545	472	453	247	40	41	248	44
	2009	1,559	461	421	262	41	41	296	37
	2010	1,579	426	431	328	33	49	273	39
	2011	1,533	393	401	320	30	52	308	29
	2012	1,485	357	399	300	34	55	316	24
	2013	1,442	324	410	265	44	55	318	26
	2014	1,367	302	397	257	41	65	279	26
	2015	1,429	304	429	255	35	71	299	36
	2016	1,394	274	440	286	41	64	267	22
남자	2005	631	3	181	164	24	63	156	34
	2006	608	5	211	140	21	53	145	30
	2007	616	5	221	155	20	48	140	24
	2008	643	3	245	153	27	41	152	21
	2009	649	2	221	163	27	41	175	18
	2010	679	3	217	204	23	49	165	16
	2011	666	2	211	190	20	52	177	11
	2012	668	3	207	178	21	54	194	9
	2013	653	2	200	154	26	55	205	8
	2014	639	1	217	148	24	64	173	9
	2015	676	4	215	155	21	71	187	23
	2016	670	8	236	164	26	64	161	11
여자	2005	999	565	166	109	13	-	111	41
	2006	953	511	199	103	12	-	103	28
	2007	919	491	194	101	12	-	99	25
	2008	902	469	208	94	13	-	96	23
	2009	910	459	200	99	14	-	121	19
	2010	900	423	214	124	10	-	108	23
	2011	867	391	190	130	10	-	131	18
	2012	817	354	192	122	13	1	122	15
	2013	789	322	210	111	18	-	113	18
	2014	728	301	180	109	17	1	106	17
	2015	753	300	214	100	14	-	112	13
	2016	724	266	204	122	15	-	106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3> 성별 연도별 유형별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단위:%)

성	연도	비경제활동니트	육아가사	구직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남녀	2005	16.4	5.7	3.5	2.8	0.4	0.6	2.7	0.8
	2006	15.9	5.2	4.2	2.5	0.3	0.5	2.5	0.6
	2007	15.6	5.0	4.2	2.6	0.3	0.5	2.4	0.5
	2008	15.7	4.8	4.6	2.5	0.4	0.4	2.5	0.4
	2009	15.9	4.7	4.3	2.7	0.4	0.4	3.0	0.4
	2010	16.3	4.4	4.4	3.4	0.3	0.5	2.8	0.4
	2011	16.0	4.1	4.2	3.3	0.3	0.5	3.2	0.3
	2012	15.6	3.8	4.2	3.2	0.4	0.6	3.3	0.3
	2013	15.1	3.4	4.3	2.8	0.5	0.6	3.3	0.3
	2014	14.4	3.2	4.2	2.7	0.4	0.7	2.9	0.3
	2015	15.1	3.2	4.5	2.7	0.4	0.7	3.2	0.4
	2016	14.8	2.9	4.7	3.0	0.4	0.7	2.8	0.2
남자	2005	13.2	0.1	3.8	3.4	0.5	1.3	3.3	0.7
	2006	12.7	0.1	4.4	2.9	0.4	1.1	3.0	0.6
	2007	12.8	0.1	4.6	3.2	0.4	1.0	2.9	0.5
	2008	13.4	0.1	5.1	3.2	0.6	0.9	3.2	0.4
	2009	13.5	0.0	4.6	3.4	0.6	0.9	3.6	0.4
	2010	14.2	0.1	4.5	4.3	0.5	1.0	3.5	0.3
	2011	14.1	0.0	4.5	4.0	0.4	1.1	3.8	0.2
	2012	14.2	0.1	4.4	3.8	0.4	1.1	4.1	0.2
	2013	13.7	0.0	4.2	3.2	0.5	1.2	4.3	0.2
	2014	13.5	0.0	4.6	3.1	0.5	1.3	3.6	0.2
	2015	14.3	0.1	4.5	3.3	0.4	1.5	3.9	0.5
	2016	14.2	0.2	5.0	3.5	0.6	1.4	3.4	0.2
여자	2005	19.4	11.0	3.2	2.1	0.3	-	2.2	0.8
	2006	18.8	10.1	3.9	2.0	0.2	-	2.0	0.6
	2007	18.2	9.7	3.8	2.0	0.2	-	2.0	0.5
	2008	18.0	9.3	4.1	1.9	0.3	-	1.9	0.5
	2009	18.3	9.2	4.0	2.0	0.3	-	2.4	0.4
	2010	18.3	8.6	4.3	2.5	0.2	-	2.2	0.5
	2011	17.8	8.0	3.9	2.7	0.2	-	2.7	0.4
	2012	17.0	7.4	4.0	2.5	0.3	0.0	2.5	0.3
	2013	16.5	6.7	4.4	2.3	0.4	-	2.4	0.4
	2014	15.3	6.3	3.8	2.3	0.4	0.0	2.2	0.4
	2015	15.9	6.3	4.5	2.1	0.3	-	2.4	0.3
	2016	15.4	5.6	4.3	2.6	0.3	-	2.2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4> 성·연령·학력별 니트1 -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 (2016년)

		수(천명)			비율(%)			구성비(%)		
		NEET	실업 NEET	비경제 활동 NEET	NEET	실업 NEET	비경제 활동 NEET	NEET	실업 NEET	비경제 활동 NEET
전체		1,778	386	1,392	18.9	4.1	14.8	100.0	100.0	100.0
남녀	남자	880	212	668	18.7	4.5	14.2	49.5	54.9	48.0
	여자	898	174	724	19.0	3.7	15.4	50.5	45.1	52.0
연령	20세미만	263	18	245	8.8	0.6	8.2	14.8	4.7	17.6
	20-24세	696	145	551	22.6	4.7	17.9	39.1	37.6	39.6
	25-29세	818	222	596	24.5	6.6	17.8	46.0	57.5	42.8
남자	20세미만	148	9	139	9.7	0.6	9.1	8.3	2.3	10.0
	20-24세	348	63	285	24.4	4.4	20.0	19.6	16.3	20.5
	25-29세	384	140	244	21.8	8.0	13.9	21.6	36.3	17.5
여자	20세미만	115	9	106	7.8	0.6	7.2	6.5	2.3	7.6
	20-24세	349	82	267	21.1	5.0	16.2	19.6	21.2	19.2
	25-29세	434	82	352	27.4	5.2	22.2	24.4	21.2	25.3
학력	중졸이하	119	8	111	63.6	4.3	59.4	6.7	2.1	8.0
	고졸	607	102	505	38.1	6.4	31.7	34.1	26.4	36.3
	전문대졸	254	70	184	22.0	6.1	16.0	14.3	18.1	13.2
	대졸이상	507	165	342	26.6	8.7	18.0	28.5	42.7	24.6
	재학휴학중	290	40	250	6.3	0.9	5.4	16.3	10.4	18.0
남자	중졸이하	54	6	48	55.1	6.1	49.0	3.0	1.6	3.4
	고졸	313	64	249	34.9	7.1	27.8	17.6	16.6	17.9
	전문대졸	90	29	61	20.0	6.5	13.6	5.1	7.5	4.4
	대졸이상	204	83	121	26.6	10.8	15.8	11.5	21.5	8.7
	재학휴학중	217	30	187	8.7	1.2	7.5	12.2	7.8	13.4
여자	중졸이하	64	3	61	70.3	3.3	67.0	3.6	0.8	4.4
	고졸	294	38	256	42.3	5.5	36.8	16.5	9.8	18.4
	전문대졸	164	41	123	23.4	5.8	17.5	9.2	10.6	8.8
	대졸이상	304	82	222	26.7	7.2	19.5	17.1	21.2	15.9
	재학휴학중	73	10	63	3.5	0.5	3.0	4.1	2.6	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5> 성·연령·학력별 니트2 -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 (2016년)

		수(천명)			비율(%)			구성비(%)		
		NEET	구직 NEET	비구직 NEET	NEET	구직 NEET	비구직 NEET	NEET	구직 NEET	비구직 NEET
전체		1,778	914	864	18.9	9.7	9.2	100.0	100.0	100.0
남녀	남자	880	494	386	18.7	10.5	8.2	49.5	54.0	44.7
	여자	898	420	478	19.0	8.9	10.1	50.5	46.0	55.3
연령	20세미만	263	45	218	8.8	1.5	7.3	14.8	4.9	25.2
	20-24세	696	368	328	22.6	12.0	10.7	39.1	40.3	38.0
	25-29세	818	502	316	24.5	15.0	9.4	46.0	54.9	36.6
남자	20세미만	148	19	129	9.7	1.2	8.4	8.3	2.1	14.9
	20-24세	348	163	185	24.4	11.4	13.0	19.6	17.8	21.4
	25-29세	384	313	71	21.8	17.8	4.0	21.6	34.2	8.2
여자	20세미만	115	26	89	7.8	1.8	6.0	6.5	2.8	10.3
	20-24세	349	204	145	21.1	12.4	8.8	19.6	22.3	16.8
	25-29세	434	189	245	27.4	11.9	15.4	24.4	20.7	28.4
학력	중졸이하	119	15	104	63.6	8.0	55.6	6.7	1.6	12.0
	고졸	607	239	368	38.1	15.0	23.1	34.1	26.1	42.6
	전문대졸	254	154	100	22.0	13.4	8.7	14.3	16.8	11.6
	대졸이상	507	376	131	26.6	19.7	6.9	28.5	41.1	15.2
	재학휴학중	290	130	160	6.3	2.8	3.5	16.3	14.2	18.5
남자	중졸이하	54	9	45	55.1	9.2	45.9	3.0	1.0	5.2
	고졸	313	137	176	34.9	15.3	19.6	17.6	15.0	20.4
	전문대졸	90	71	19	20.0	15.8	4.2	5.1	7.8	2.2
	대졸이상	204	182	22	26.6	23.7	2.9	11.5	19.9	2.5
	재학휴학중	217	95	122	8.7	3.8	4.9	12.2	10.4	14.1
여자	중졸이하	64	7	57	70.3	7.7	62.6	3.6	0.8	6.6
	고졸	294	101	193	42.3	14.5	27.8	16.5	11.1	22.3
	전문대졸	164	83	81	23.4	11.8	11.5	9.2	9.1	9.4
	대졸이상	304	194	110	26.7	17.1	9.7	17.1	21.2	12.7
	재학휴학중	73	35	38	3.5	1.7	1.8	4.1	3.8	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